

No. 2013-47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1. 25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기업들의 수익력 크게 개선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무역적자 확대 및 美日간 금리차 확대 예상 등으로 약세
- 장기금리 : 일본은행의 장기국채매입조작으로 전반에는 하락세, 후반에는 美 금
응완화 조기축소 예상과 추가하락으로 상승세

구 분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11.22(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00.26	99.80	100.10	100.45	101.23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63.30	1,061.60	1,054.11	1,055.56	1,049.57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5,164.30	15,126.56	15,076.08	15,365.60	15,381.72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30	0.615	0.610	0.625	0.62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5%, 연율 1.9%로 4분기 연속 플러스
- 2013년 10월 무역수지는 엔저에 따른 연료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1.1조엔으로 크게 확대

*對한국 무역수지는 1.3천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3.8			1.9(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61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72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4.64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3.29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479			-
對한국 투자	(40)	7.7			9.1			8.6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4.1	4.0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5.9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97.9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1,090
외환준비고(가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12.8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0.59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전략적인 인프라시스템의 해외전개를 위하여 : 주요국별 관심분야별 과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11월20일
*출처:http://www.keidanren.or.jp/policy/2013/100_honbun.pdf
- 『선진국을 위협하는 일본화 리스크 : 디스인플레이에서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1월19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kuma/pdf/k_1311c.pdf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기업들의 수익력 크게 개선

□ 1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 11월 22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본기업들의 수익이 한층 개선되었다고 평가
- 일본은행의 단칸(短観: 단기경제관측조사)에 의하면, 2013년도 매출액은 4년 연속 증가, 경상이익도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장기업들의 2013년 3분기 결산실적을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이익이 증가

□ 닛케이신문도 글로벌 경쟁기업들과의 수익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

- 닛케이신문도 일본기업들의 수익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3년 3분기 결산 기준으로 주요 일본기업의 수익력을 글로벌 경쟁기업들과 비교할 때, 자동차는 「쾌속 질주」, 철강은 「부활」, 통신은 「도전 중」 이라고 각각 표현
- 특히 시가총액과 관련해서는, 일본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높은 평가가 주가를 지탱해줌으로써 11월 15일 닛케이평균주가가 약 6개월 만에 15,000엔대를 회복했다고 논평

□ 신일철주금, 포스코를 누르고 영업이익 세계 1위

- 최근 신일철주금의 이익률 변화가 일본 제조업의 부활을 상징
- 신일철주금은 작년 10월 경영통합으로 규모면에서 포스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며, 수익면에서도 이익율을 개선시킨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2.7배(2사 단순합계)인 832억 엔으로 급증
- 이는 포스코의 약 1.5배이자 세계 철강업계에서 1위 수준인데, 일본 국내수요의 회복과 합리화 노력이 수익력을 부활시킨 원동력으로 작용
- 합병에 따른 합리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조선용 후판은 舊 스미토모금속공업의 카지마 제철소에 생산을 집약
- 반면, 포스코는 수요부진과 한국 내 판매경쟁으로 고전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40%나 감소

□ 도요타자동차, 경쟁기업들과의 격차 벌리면서 1위 견지

- 자동차는 그야말로 쾌속 질주하고 있는데, 도요타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74% 증가한 5,920억 엔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쟁기업들을 뿌리치고 1위를 견지

- 부품의 표준화를 비롯, 도요타의 강점인 원가개선과 엔저도 수익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 매출액은 폭스바겐과 비슷하나 이익율에서는 크게 앞섰는데, 우수한 상품력을 바탕으로 북미시장에서는 가격인상도 가능할 만큼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

□ 소프트뱅크, ATT사 추격

- 통신 분야에서는 미국 스프린트를 매수한 소프트뱅크가 매출액, 시가총액, 이익 등에서 미국 ATT의 50% 규모
- 손정의 사장은 앞으로 2년간 1조 6,000억 엔을 투자하여 ATT를 추격할 계획이라고 함

□ 고마츠도 감량경영으로 이익 전환

- 건설기기업체인 고마츠는 영업이익이 반감된 미국 캐터필라와는 달리 2% 증가한 565억 엔의 영업이익을 확보
- 재고감축을 중심으로 한 감량경영을 중시함으로써 광산기계의 수요급감 영향을 최소화
- 전 산업으로 볼 때, 내년 3월 결산 기업들의 순이익 합계는 60% 증가할 전망
- 고정비를 줄여 매출액이 늘어나면 이익이 증가하는 체질로 바뀌고 있기는 하나, 외국기업과의 차이가 큰 업계도 있음
- 영업이익이 미국 GE의 1/3에 불과한 히타치제작소는 비용구조 개혁을 추진 중

□ 수익 회복의 저변도 확대

- 수익 회복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음
- 2013년도 경상이익이 과거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수가 266개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
- 엔저와 탄탄한 내수기반에 힘입어 자동차와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강화되어 전체를 견인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엔고와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 합리화와 재편이 가속됨에 따라, 최근 내수회복과 엔저에 힘입어 일부 유력 기업들에 국한하지 않고 중견 기업들까지도 폭넓게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양상
- 일본기업들의 수익이 급격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자기자본이익율은 평균 8%대로 10%대 중반인 구미기업들에 비하면 여전히 떨어짐
- 향후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성장투자와 주주배당을 실시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일본기업들의 과제

③ 경제정책동향

□ 경제산업성, 태양광 가격 20% 인하 검토

- 경제산업성이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 인하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을 재검토
 - 매입가격을 2013년 킬로와트당 38엔에서 2015년에는 30엔으로 20%이상 인하하는 방안이 부상
 - 고비용 전력 증가로 소비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풍력과 지열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 현재까지 인가된 태양광의 발전용량은 일본정부의 2020년 전망치(2,800만킬로와트)에 근접한 2,700만킬로와트에 달함
 - 높은 매입가격 때문에 서둘러 인가를 받은 것인데, 이중 약 70%는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으나, 가동될 경우 10~20년간 전력의 고비용 부담이 계속될 전망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2020년 시점의 가구 부담액은 연간 8,100억 엔, 표준가구의 월간 부담액은 2012년에 비해 약 4.2배인 276억 엔으로 산출
 - 풍력, 지열, 수력의 매입가격은 고정시키는 반면, 태양광은 2014년에 34엔, 2015년 이후는 30엔으로 인하하는 것을 전제
- 경산성은 금년 중 발표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풍력과 지열 발전의 추진 방침을 포함시킬 예정인데, 후보지 확보를 위해 농지법과 하천법을 둘러싼 규제완화 외에, 환경영향 평가기간 단축 등이 포함
- ‘고정가격매입제도’ 하에서 태양광의 가격이 킬로당 38엔으로 매우 높게 설정된 주된 이유는 대형 패널과 토지취득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임
 - 이에 비해 풍력발전은 23.1엔으로 싼 편인데, 일본정부는 풍력의 대규모화를 목표로 기술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해상풍력의 매입가격 인상을 검토 중
 - 지열발전 가격은 27.3엔으로 비교적 싼 편인데, 일본은 화산이 많아 지열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임
- 최근 외국의 태양광패널업체들이 잇따라 일본에 진출함에 따라, 태양광발전 비용이 저하되고 있는 점도 매입가격 인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금년 3월말 시점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가격은 발전능력 킬로와트당 28엔으로 1년 전에 비하여 10% 이상 하락
 -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은 발전비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의 일본시장 진출로 경쟁이 촉진되면 매입가격이 떨어질 전망
 - 일본의 태양광 매입가격은 제도가 도입된 2012년에 세계 최고 수준인 킬로와트당 40엔으로 설정한 이후 2013년에 36엔으로 10%인하하였으나, 독일의 2배 수준

4 일본기업동향

□ 도요타자동차, 중국기업과 하이브리드자동차 공동개발

-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자동차업계 3위인 제일기차집단, 6위인 광주기차집단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공동 개발기로 함
 - 현재 도요타는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핵심부품과 제어기술의 개발·생산까지 현지에서 담당할 예정
- 도요타는 제일기차와는 「일기도요타」, 광주기차와는 「광기도요타」 2개의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사의 연구개발부문과 제휴하여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하여 연비성능을 높이는 HV기술을 공동개발, 생산하여 2015년까지는 판매할 계획
- 도요타는 중국에서 HV기술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전지와 모터 등의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출, 현지 합작회사에서 조립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프리우스의 차량가격이 휘발유차보다 2배나 높아져 판매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도요타는 이번 제휴강화로, HV의 핵심인 제어기술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외에, 전지도 현지 민간 전지제조업체와 공동개발·생산 예정
 - 상해에 최근 설립한 연구개발거점을 중심으로 합작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심화하고 저가 부품을 조달하여 차량가격을 인하할 방침
- 중국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5월에 2020년까지 새로운 연비규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와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V)에 보조금을 지급, 2020년까지 500만대 보급 목표도 설정
- 도요타는 에코카(Eco Car)의 보급 부진과 환경기술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어필하는 형태로 현지화를 추진
 - 이제까지 사내에 한정해 온 핵심기술의 개발방침을 전환함으로써 2,000만대 규모의 세계 최대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한다는 방침
- 도요타는 이미 후지중공업과 마쓰다 등 일본기업들에게 HV기술을 공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사와의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HV시스템에 의한 양산과 차량가격 인하 전략으로 선회할 방침
 - 환경기술 육성이 과제로 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도 제휴하여 HV의 저비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

□ 미쯔비시상사, 미얀마에서 1조엔 규모의 발전소 건설 참여

- 미쯔비시상사가 미얀마 남부 다웨이 경제특구에서 대형발전소 건설에 참여
 - 태국기업과 공동출자하여 700만 킬로와트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조엔 규모
 - 다웨이 경제특구는 미얀마와 태국 양국 정부가 임해공업단지 개발을 계획 중인데, 이번 미쯔비시상사의 참여가 미얀마에 대한 일본기업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4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착공할 예정인데, 최초 발전설비는 2015년 중 운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출력 700만 킬로와트의 전력 중 400만 킬로와트는 태국에 판매하고 나머지 300만 킬로와트는 다웨이 경제특구에 공급할 계획
- 합작회사는 미쯔비시상사가 출자한 태국전력회사 일렉트리시티·제네레이팅이 50%, 태국의 최대 건설업체인 이탈리아엔타이·디벨로프먼트가 20%, 그리고 미쯔비시상사가 30%를 출자하기로 합의
- 미얀마와 태국 양국 정부는 절반씩 출자하여 경제특구의 전체 계획 수립과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특별목적사업체(SPV)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항만, 철도 등 분야별로 7개의 인프라 사업 회사를 운영할 방침인데, 미쯔비시상사는 그 중 발전분야에 참여
- 인프라 정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얀마와 태국은 자금력과 신용이 있는 일본정부에 SPV에의 참여를 요청, 3국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고 있음

5 한국관련워치

□ 일본만을 남겨 놓은 한국외교

- 넛케이신문은 11월16일자 ‘일본만을 남겨놓은 한국외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미디어도 박근혜 정부의 완고한 대일 강경자세를 의문시하는 논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한국정부에 한일정상회담의 조기실현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은 종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과의 외교를 특히 중시해 왔는데,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과 중국을 공식 방문한데 이어,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으로 미·중·러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끝낸 셈이며 남아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는 것
- 넛케이신문은 박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 부정적이며, 유럽을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의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
- 이번 한·러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역사에 역행하는 언동의 영향으로 동북아시아 협력이 완전히 실현할 수 없게 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문구도 담겨있다고 하면서, 이는 일본에 대한 견제로 보여 지나, 의심스러우면 일본의 지도자와 직접 부딪쳐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
- 한국과 일본은 박 대통령도 인정하듯이 중요한 이웃이며 경제관계도 깊은데도, 역사문제에서 성과가 없을 것 같아 만나지 않는다는 식으로는, 한일관계가 진전될 수가 없다고 넛케이신문은 보도
 - 역사문제를 포함하여 정상끼리 흥금을 털어놓고 대화하여 타개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 한국에서는 전시 중 일본에 징용된 한국인에 대한 배상을 일본기업에 요구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일의 장래를 우려하여 일본의 對韓 투자분위기가 냉각되기 시작
 - 그렇지 않아도 한일 현안이 산적되어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누출을 이유로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입금지조치도 문제라는 것

□ 이세식품, 한국기업과 합작으로 북경에서 계란가공사업

- 일본의 대형 계란가공 업체인 이세식품(주)과 바이오벤처 파마푸즈가 한국의 대형 식품업체인 풀무원과 합작하여 2014년 봄을 목표로 중국 북경에서 계란가공사업을 시작한다고 넛케이신문이 보도
- 이세식품의 중국 자회사 등 3개사는 가까운 시일 내 조리면을 제조하는 풀무원의 북경 식품공장 부지 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
 - 약 3억엔을 투자하여 삶은 계란 등의 가공시설을 건설, 월 생산량 100만개 정도로 사업을 발족시켜 북경과 천진지역의 슈퍼와 편의점에 판매할 예정